

‘제주의 딸’ 고지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KLPGA 하이원리조트 오픈
최종 22언더파 270타 기록
강원도 대회에서만 4승 수학
박혜준·성유진 공동 2위 올라

고지우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독주를 이어간 끝에 1위 자리를 한번도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고지우는 12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만 2개를 적어내 2오버파 75타를 쳤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1라운드에서 공동 1위, 2라운드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선 뒤 리더보드 맨 윗자리를 내주지 않은 고지우는 최종 합계 22언더파 270타로 올 시즌 첫 번째이자 KLPGA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과 함께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고지우가 수학한 4승 모두가 강원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나왔다.



12일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해 통산 4승을 올린 고지우가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제주도가 고향인 고지우는 KLPGA 투어 데뷔 첫 승을 2023년 맥콜·모나 오픈에서 올렸고, 2024년에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년 맥콜·모나 오픈에 이어 올해에는 다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우승컵을 가져왔다.

8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고지우였지만, 긴장한 듯 전반 9개 홀에서 버디는 한 개도 잡지 못하고 보기 2개를 적어내 2타를 잃었다.

고지우는 4번 홀(파5)에서 4라운드 두 번째 보기를 한 뒤 18번 홀까

지 14개 홀 연속 파를 이어갔다.

4라운드 시작부터 타수 차가 많이 났기에 고지우를 위협할 만한 추격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나란히 4타를 줄인 박혜준과 성유진이 함께 17언더파 275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제13회 제주도지사배 국제초청대회 17일 개막 휠체어농구 한·일·태국 8개팀 우정의 점프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등 국내외 휠체어농구선수들이 제주에서 우정의 점프볼 매치를 선보인다.

제주도장애인농구협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제주도지사배 국제초청 휠체어농구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과 국내외 8개팀이 출전해 최강팀을 가린다.

정규대회 조편성으로는 A조 제주도와 일본, 춘천타이거즈, 고양홀트, B조는 태국, 코웨이블루윙스, 수원무궁화전자, 대구광역시와 각각 포진해 예선리그를 펼친다.

예선리그 결과를 토대로 A조 1위-B조 2위, B조 1위-A조 2위가 각각 4강 토너먼트전을 펼쳐 대망의 결승전 진출권을 가린다. 4강전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와 낮 12시30분에 펼쳐지며 20일 낮 12시 3-4위전, 오후 2시 결승전이 각각 치러진다.



지난해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국제초청 휠체어농구 대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특히 8개팀이 참가하는 3×3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해 또 다른 휠체어농구 진수를 선보일 전망이다. 3×3 토너먼트 경기는 19일 오후 3시 수원-홀트, 태국-일본전을 시작으로 오후 3시30분 춘천-대구, 코웨이-제주전으로 진행된다. 이어 승자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와 오후 4시30분 각각 4강전을 치른 후 오후 5시30분 대망의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위영석기자

제주 출신 강한수 AG 승마 국대 선발 ‘승마의 꽃’ 종합마술 종목… 제주시 월평동 출신

제주 출신 승마선수 강한수가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지·나고야 아시안 게임’ 승마 종합마술 종목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번 2026 아이지·나고야 아시안 게임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은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열한 접전 속에 치러졌다. 강한수는 이 중 승마의 꽃이라 불리는 ‘종합마술’ 종목에서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한수는 지난해에도 종합마술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약한 바 있으며, 이번 선발을 통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다는 쾌거를 이뤘다.

종합마술은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비월을 사흘에 걸쳐 모두 치러야 하는 종목으로, 선수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강한수.

의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은 물론 말과의 깊은 교감을 필요로 하는 경기다.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값고달은 기량을 발휘해 국위선양은 물론, 말산업 특구 10년 연속 1위(2024년 기준)인 제주의 명예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양궁 꿈나무 박현 회장기 전국대회 ‘동메달’ 남자 컴파운드 30m… 개인종합 아쉬운 4위

제주의 양궁 꿈나무 박현(한라중3·제주양궁클럽·사진)이 전국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제주 양궁의 매서운 저력을 과시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양궁협회에 따르면 박현은 ‘제53회 한국중고양궁연맹회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양궁대회’ 남자 컴파운드 30m 거리별 경기에서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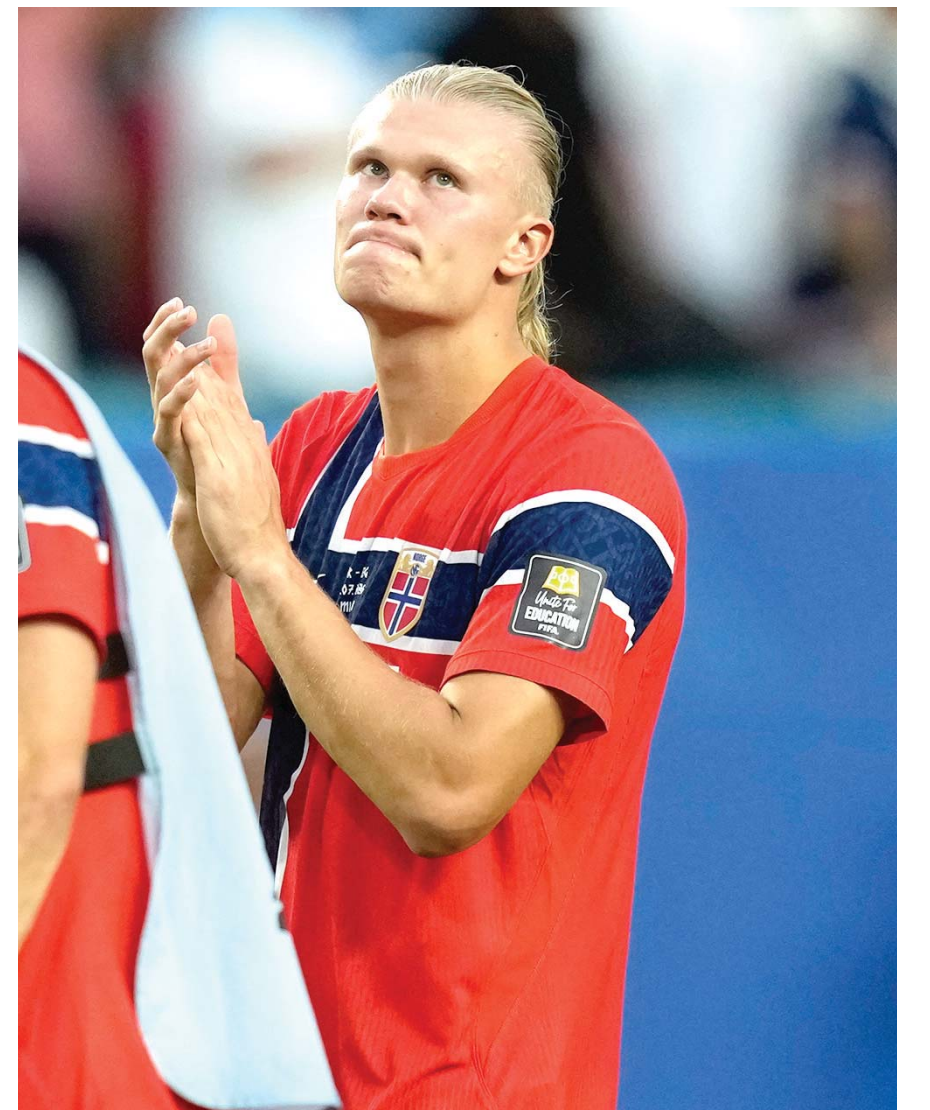
전국 각지의 우수 유망주들이 총출동한 이번 대회에서 박현은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밀려오는 최악의 기상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심장을 보여줬다.

박현은 기세를 몰아 개인 종합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메달 다툼을 벌인 끝에 아쉽게 4위를 기



록, 전국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제주도 양궁협회 손혜진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기 환경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값진 메달을 따낸 박현이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박 현수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제주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김수연(제주고)이 리커브 여고부 30m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돌풍’ 홀란의 노르웨이 마침표 귀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사진)이 이끄는 노르웨이는 12일(한국시간) 잉글랜드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연장 혈투 끝에 1-2로 패배했다. 한편 같은 날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스위스를 상대로 3-1 승리에 4강 대진이 완성됐다. 15일 오전 4시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하며, 16일 같은 시간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는다. 연합뉴스

여름 바캉스 특가 여행
주말 1박2일
익산+광주+담양+순창

익산 보석박물관 아가페정원 담양 소쇄원 & 죽녹원 고스락 강천사 메타 프로방스

1일차 제주공항 출발 ✈️ → 광주공항 도착 → 익산 보석박물관 → 중식 → 아가페정원 (비행 개인부담) → 고도소세트장 → 석식 → 광주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담양 소쇄원 → 죽녹원 → 중식 → 강천사 메타 프로방스 → 광주공항 출발 ✈️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399.000원 **3인1실 395.000원** **4인1실 39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포함), 호텔료, 전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8월1일, 8일, 15일(단, 3회)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주말 로망스 1박2일 여행
청주+단양+영주+안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청주공항 도착 →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모노레일포함) → 중식 → 영주 부석사 → 석식 → 월영교 야경 → 안동 호텔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안동 하회마을 → 부용대 전망대 → 중식 → 안동 중앙시장 → 청주 초정행궁(죽목포함) → 청주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포함) 호텔료, 전 일정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8월1일, 8일, 15일(단, 3회) *20명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